
KACES-0720-C00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
연수과정 6

아동의 이해와 지도법

연 수 명 : 아동의 이해와 지도법

연수목적 :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능력 향상 도모

일 시 : '07.5.12(토) / 8시간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교육관 제2강의실

주 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여대상 : '07 활동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등 40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 여섯번째 연수과정 『아동의 이해와 지도법』

이번 연수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아동지도 교수학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연수입니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지도방법론을 모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연수 내용

연수 주제	시 간	시간	연 수 내 용	강 사
아동의 이해와 교육	9:30-12:30	3	○ 아동의 이해와 교육	○ 황매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2:30-13:30		※ 중식(개별식사)	
아동지도 및 아동이해	13:30-15:30	2	○ 아동지도방법론	○ 오정숙 (인천미전초등학교 교사) ○ 김창복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교사)
	15:30-18:30	3	○ 아동지도 워크숍 - 아동지도실습 - 학교현장에서 문제해결 과정 토론 논의	
		8		

※ 중식은 제공되지 않음 /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아동의 이해와 교육 7

황매향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아동지도 및 아동이해 25

오정숙 / 인천마전초등학교 교사

김창복 /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교사

아동의 이해와 교육

황매향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사소개_황매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교육상담전공)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연구원,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Career Center(Visiting Schola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대우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아동의 이해와 교육

학습내용

- ❖ 동기란?
- ❖ 동기이론
 -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 ❖ 성취동기
- ❖ 동기를 증진시키는 변인
 - 아동변인
 - 교사변인
 - 교수방법변인
- ❖ 동기 유발 전략

동기란?

- ❖ 라틴어 movere(움직인다)에서 유래
- ❖ 인간 행동을 유발, 방향 제시, 유지시키는 내적 상태로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
 - 발생적 기능
 - 방향적 기능
 - 강화적 기능
- ❖ 동기의 요인
 - 내재적 동기
 - 외재적 동기

행동주의 동기이론

- ❖ 충동감소이론: 욕구나 충동으로 인한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행동은 진행된다
- ❖ 일차적 충동
 -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내적 욕구상태
 - 배고픔, 목마름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
 - 일차적 강화물에 의해 충족
- ❖ 이차적 충동
 - 일차적 충동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욕구
 - 이차적 강화물에 의해 충족
- ❖ 반응경향성 = F (충동·습관강도)

행동주의 동기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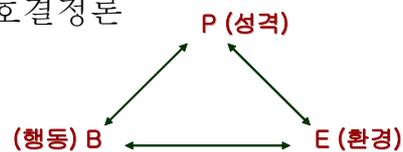
- ❖ “효과적인 강화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 어릴수록 보상을 기대하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함
- ❖ 어릴수록 다수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강화물을 좋아함
- ❖ 주의점
 - 외재적 보상이 내재적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음
 -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때 과제를 하지 않음
 - 쉬운 과제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낮은 능력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인지주의 동기이론

- ❖ “사람들은 신체적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반응한다”
- ❖ 행동이란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 내재적 동기 강조
- ❖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 Weiner의 귀인이론

자기효능감 이론: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 ❖ 상호결정론



- ❖ 관찰학습
 - 대리적 조건화
 - 직접 모방에 의한 학습
-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이론: 관찰학습

- ❖ 모델의 특성이 모델을 모방할 경향성에 영향
- ❖ 관찰자의 특성이 모델링에 영향
- ❖ 행동과 관련된 보상결과는 모델링의 효과에 영향



지연된 모방_공격성

❖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by Albert Bandura, Dorothea Ross, and Sheila A. Ross(1961)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이란?

- ❖ 자기효능감
 -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 ❖ 자기효능감 ⇒ 목표수립 ⇒ 동기
- ❖ 높은 자아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실제 자기 능력보다 높은 성취를 보임
- ❖ 학생의 자기효능감 vs. 교사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의 원천

- ❖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 cf. 자아존중감이나 통제소재와 구분되는 개념
- ❖ 자기효능감의 원천
 - 직접적 성취경험
 - 대리 경험
 - 언어적 설득
 - 정서적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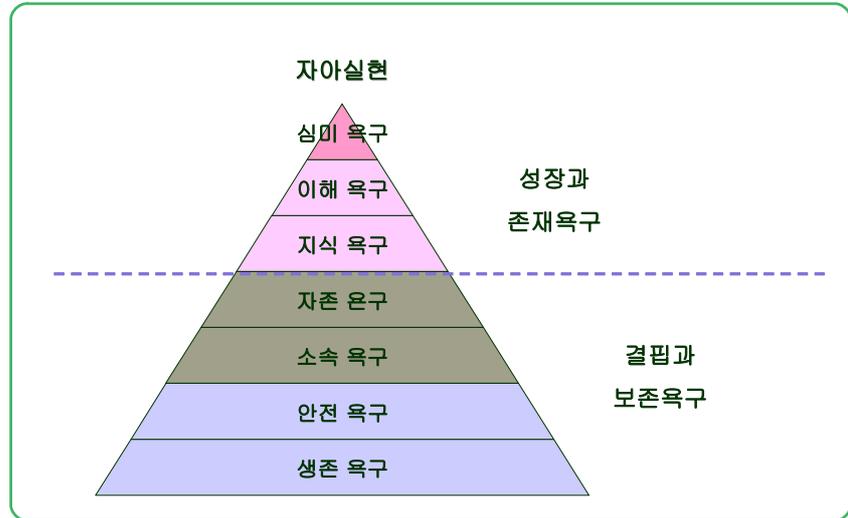
귀인이론

- ❖ 성공이나 실패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성에 대한 이론
- ❖ 원인에 대한 분류
 - 소재(locus) ⇒ 자신감, 자존심, 죄책감, 수치심
 - 안정성(stability) ⇒ 미래에 대한 기대
 -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 자신감, 미래에 대한 기대
- ❖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능력, 운, 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힘에 귀인시킬 때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귀인시킬 때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된다

인본주의 동기이론

- ❖ 동기의 내재적 근원에 관심
 -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욕구
 - 생득적 경향성을 위한 개인의 욕구
 - 자기결정을 위한 개인의 욕구
- ❖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내적 자원(유능감, 자존감, 자율성, 자아실현)을 격려해 주는 것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 ❖ 초기 동기 이론
 - ❖ Skinner(1938)의 강화이론
 - ❖ Tolman(1932)의 기대이론
- ❖ Deci(1972)의 내재적 동기 이론
 - ❖ 내재적 동기는 외적 보상에 의해 저하된다
 - ❖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지 않는다
- ❖ 자기결정성 이론, 내적 동기 및 외적 동기의 동기위계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 자기결정성 이론의 구성요소

- 인지적 평가 이론
- 유기체 통합 이론
- 개인차 이론
- 기본욕구이론
 - 유능감(competence)
 - 유대감(relatedness)
 - 자율성(autonomy)

자기결정성 이론

❖ Vallerand(1997): 학습동기의 위계적 모형



성취동기

- ❖ 학교에서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
- ❖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
- ❖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
 -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를 위해 한 영역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경향
 - 과업지향적 동기, 적절한 모험성, 성취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정력적·혁신적 활동성, 자기책임감,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성향, 미래지향성
- ❖ 안정되고 무의식적 특성 vs. 당면한 상황관련 요인

성공추구와 실패회피

- ❖ 성공추구동기 > 실패회피동기
 - 중간정도 난이도 과제 선호
 - 성공보다 실패가 동기를 증가
 - 성공과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
- ❖ 성공추구동기 < 실패회피동기
 - 성공추구동기가 높은 학생들보다 난이도 하 또는 난이도 상의 과제 선호
 -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패회피동기 증가
 - 실패회피는 실패수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수행목표와 학습목표

- ❖ 목표 개념에 도입된 성취동기 이론
- ❖ 수행목표
 -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관심
 - 영리해 보이고 싶어하고 능력없어 보이는 것을 회피
 - 자아개입형 학습자
- ❖ 학습목표
 - 학습증진에만 관심
 - 과제의 완속에만 관심이 있어 “일에 빠져 버렸다”
 -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하며 목표달성 추구
 - 과제개입형 학습자

학습동기 증진 변인

- ❖ 학생 변인
 - 각성수준
 - 좌절감
 - 시험불안: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불안상태
 - 학습된 무력감: 실패를 내적-안정적-통제불가능한 원인에 귀인
- ❖ 교사 변인
 - 교사의 열정
 - 교사의 온정과 감정이입
 - 교사의 기대: “교실에서의 피그말리언 효과”

학습동기 증진 변인

❖ 교수방법 변인

- 완전학습: 어떤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
- 협동학습: 집단 내에서 어떤 목표의 달성을 놓고 그 구성원간에 전개되는 상호작용인 목표구조(goal structure, 협동적, 경쟁적, 개인주의적)에 관심에서 출발하여, 협동관계에서 한 학생의 성취목표가 다른 학생의 목표 성취를 돕도록 구성

학습동기 유발 전략

- ❖ 기본 조건
- ❖ 긍정적 기대 형성
- ❖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이해
- ❖ 과제에 대한 몰두

학습동기 유발 기본 조건

- ❖ 교실은 끊임없는 방해와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성
- ❖ 교사는 학생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벌하지 말고 학습을 위한 기회로 간주
- ❖ 학습과제는 도전적이면서 적절한 것(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은 것)
- ❖ 학습과제는 가치로운 것

긍정적 기대의 형성

- ❖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시작하고 작은 단계로 나아가라
- ❖ 학습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까운 미래에 도달 가능하도록 설정하라
- ❖ 동료학생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비교를 하도록 강조하라
- ❖ 능력이란 개설될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도 열심히 분발하여 학습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라
- ❖ 좋은 문제해결의 시범을 보여라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이해

- ❖ 수업활동을 학생들의 관심과 연결시켜라
- ❖ 호기심을 불러일으켜라
- ❖ 학습과제를 재미있게 만들어라
- ❖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을 연결하라

과제에 대한 몰두

- ❖ 질의응답, 간단한 연구과제, 시범을 통해 학생들이 반응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라
- ❖ 점수와 경쟁에 너무 강조를 두지 마라
- ❖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라
- ❖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 과제에 열중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강화받을 수 있도록 즐겁게 구성하라
- ❖ 교사가 동기유발의 모델이 되라

내가 들어 본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은?

그 칭찬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내가 들어 본 꾸중 가운데 나를 변화시켰던 꾸중(훌륭한 꾸중)은?

그 꾸중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아동지도 및 아동이해

오정숙 / 인천마전초등학교

김창복 /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강의 목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강의 개요

- 아동의 특성 이해
- 교사의 자질 및 학부모 관계
- 아동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수업전개를 위한 방법 알기
- 교실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지도법 익히기

키워드

아동의 특성, 아동의 발달단계, 생활지도, 학부모 관계

강사소개_오정숙

청주교육대학교 및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초등학교상담 전공)을 졸업하였으며,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교육심리전공)을 수료하였다. 2006년 SBS 교육대상 및 인천광역시 안전교육 사례발표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천관내 초등학교 교사 대상 토의수업, 통일교육, 안전교육 등의 강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인천마전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자녀가치 탐색(오정숙 외 2인, 한국청소년학회지, 2007)』이 있다.

강의소개_김창복

청주교육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대학원(상담심리 전공)을 졸업하였다. 경인교육대학교 학생 대상 교생실습 4년 경력, 인천광역시 시교육청 혁신분과위원, 인천광역시 현장연구발표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현재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교사(연구부장)로 재직 중이다.

아동지도 및 아동이해

I. 교사의 자질과 역할

1. 학생들이 보는 교사

♥ 가장 좋았던 선생님이로 인상이 깊었던 선생님

- ① 모든 일에 열성적인 선생님
- ②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박식한 선생님
- ③ 무슨 일이나 협조적인 선생님
- ④ 학생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선생님

♥ 가장 좋지 못했던 선생님이로 인상이 깊었던 선생님

- ① 신경질적인 선생님
- ② 대중 앞에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선생님
- ③ 비꼬는 선생님
- ④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만한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선생님
- ⑤ 지적 호기심이 없는 선생님

2.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

가. 교사는 따뜻한 학급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담임으로서 학교 관리자나 부장교사들의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의 경영 방침, 학년 연간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급담임 교사 자신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위한 자세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실한 학생, 생활인, 한국인이 되자.'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멋진 학생이 되자.' 등으로 첫날 첫 만남에서 교사 자신의 교육관을 말해 주고, 일관성 있게 연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급 담임은 학생들 누구와도 돈독한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학급담임은 우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상담하고 그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고 안내해 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 유망 직업 찾거나 현재의 직업별 보수 현황표 등을 제시하거나, 위인이나 명사, 주변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다. 또한 조·종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사 뉴스, 사회적 이슈, 명언, 명구, 사자성어, 양서의 내용 등을 인용한 의미 있는 담임교사의 훈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학급 담임은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부족한 교과 학습 방법 안내 및 스스로 부족한 교과의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꾸준한 학습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지도 역시 미래 자신의 꿈 실현과 연계하여 상담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라. 생활지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담임교사들이 학급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활지도이다.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분실사고, 무단결석 및 가출, 금품갈취 및 폭행사건, 집단 따돌림, 흡연 및 약물 오남용, 복학생의 중도탈락 등이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담임이 많다. 이제 담임은 학교 안팎에서 나타나는 전 영역에 걸쳐 학생 생활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학교 활동 전반에 걸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 계획서, 월중행사, 주간 예정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봉사활동과 관련한 규정, 내신 성적 처리 기준 등을 잘 알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벌규정, 학생 생활 규범 및 교칙 등을 홍보하여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 다양한 형태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학기 초 가정환경 조사서, 개인 소개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정환경, 개인적인 애로사항, 취미, 성격, 진로 희망, 종교 등을 파악하여 상담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계획상담, 개별상담, 정기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 및 학생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상담활동으로 알게 된 학생 신상 관련 내용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생과 담임교사의 신뢰 형성이 되는지 수시 확인한다. 담임교사는 때로는 부모, 형님, 누님, 친구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적대감 표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됨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부적응 학생 및 요선도 학생들은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며,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와의 상담, 전화상담을 수시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급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애로점과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공동체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급 추억거리를 연중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학급회를 통하여 학급문집, 학급신문, 학급CD 제작, 학급의 급훈, 학급 내규, 구호, 반가 만들기 등을 통하여 학급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추억이 될 만한 ‘~거리’만들기에 담임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사용한다. 테마가 있는 임진강행 가을소풍, 동네공원으로 소풍가기, 삼겹살 구워 먹기, 감자밭 가꾸기, 봉숭아 키우기(싹틔우기, 물주기, 꽃피우기, 물들이기, 씨받기, 씨 나눠 갖기, 다음해 꽃피워 나눠주기), 생일잔치, 사진 찍기, 등산하기 등을 실천해 본다.

아.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에서부터 출발한다. 평소의 올바른 언행을 통하여 교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관성 있는 생활태도,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미소 짓기, 좌측통행, 훈화, 음식 함께 먹기, 작은 선물이나 편지 주기, 함께 여행·게임하기, 흡연 안 하기, 지나친 비난이나 수다 안 하기 등을 실천하여 담임교사가 생활의 모델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평소 교사는 인격 수양에 좋을 책읽기나 위인, 교사와의 만남을 많이 가져 동료교사나 선배교사들의 장점을 배우거나 충고를 듣도록 한다.

자. 추수(추후) 지도를 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고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교사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제자는 일이년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함께할 영원한 제자들임을 잊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성의껏 상담하고 보살펴 주면 될 것이다. 상황에 맞게 그들의 올바른 심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고 상담한다면, 이 또한 교사로서 보람 있을 일이다. 각종 편지, E-mail 주고받기나 전화상담을 통해 하면 좋다.

차. 학부모와의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 가. 교사는 “학부모를 교육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 나. 교사는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다. 교사는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3.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 경험

가. 역시 약자는 부모인 것 같다.

교사와 학부모가 의견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또는 사소한 불화가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마무리 되는가? 교사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한 대체로 교사의 상황 설명과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 주장이 있고나면 학부모의 사과와 이해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부모들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을 해도 결국 아이는 학교에 와야 하는 현실....”

나. 인간적인 교류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학부모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나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하소연이나 뉘그러인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 진지한 상담의 형식을 요청해 오기도 한다. 보통 학부모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가정불화 문제, 금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이다. 이러한 고민을 들어주는 일은 교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나이 어린 내 앞에서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몽땅 쏟아 놓으시던 어머니...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난감하기만 했다.”

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학부모는 부담스럽다.

학교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관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와 반대로 너무 모든 것을 교사에게만 맡기고 학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부모 중에서 교사들은 전자의 학부모를 더 부담스럽게 느낀다. 교사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사의 교육 실재를 지지해주기를 기대하고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며, 그리고 교사에 계획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학부모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감시인 것 같다”

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문제 아동은 문제 가정에서’라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아동은 학부모 이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아이는 바로 학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 아이를 통해 학부모를 보고, 학부모를 통해 아이를 본다.”

마. 사소한 일을 확대·과장한다.

교사는 별 것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학부모들은 확대시켜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학부모 의해 특별한 일로 여겨 지기도 한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학부모들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바. 교육 전문가는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이다.

교사는 사회적 지위 및 지식수준 면에서 학부모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교사들이 주로 접 하는 학부모는 어머니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전업 주부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와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교사를 스스로와 비교하여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교육 문제는 아무래도 교사가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 같은 아동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객관적인 잣대보다 주관적 생각 속에서 아이를 보게 되고, 부족한 점이나 허물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자기 아이 의 단점을 몰라서라기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전화 또는 교실에 찾아오는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그 아동의 학교에서의 사실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랑합니다.’, ‘조금 산만해요’ 등의 식으로 충격을 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II. 좋은 수업을 위한 제언

수업의 흐름 파악하기

영역	관점	제언
수업안	1. 수업안 ○ 학습 내용, 집단조직, 활동의 조직성 ○ 학습자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계획성 ○ 학습의 다양성, 융통성의 고려 ○ 교수·학습 과정의 유연성 ○ 수행 평가에 대한 고려	◎ 학습유형에 얽매이지 말라. 참다운 학습은 그 지도 방법이 다양함 ◎ 자기만의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라. ◎ 1교사 1교과 일가견을 가져라. - 우리 선생님 음악 하나는 끝내준다!
교수학습활동	2. 학습 문제(과제)의 명료화 ○ 학습 목표, 학습 문제(과제)의 명료성(자기것화) ○ 학습 순서, 방법의 협의와 과정화 ○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 구성의 타당성	◎ 학습의 근본 목표는 단위시간의 학습할 내용의 최종 목표 도달이다. -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이지요? - 학습 목표를 답하는 훈련을 시켜라
	3. 발문과 응답 처리 ○ 기억 발문과 사고 발문의 적절성 ○ 학습 동기 유발(칭찬, 격려) ○ 교사의 학생 응답처리 ○ 교사 발문의 어조, 억양, 명료	◎ 한사코 칭찬을 아끼지 말라. - 잘했군! - 박수! - 훌륭해! ◎ 교사의 발문에는 아동을 이해하려는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4. 개별화 학습과 집단 학습의 조화 ○ 개별 학습과 개별화 학습 활동 ○ 소집단 학습,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 협력 학습시 교사의 역할 ○ 개별(화) 학습, 소집단 학습, 대집단 학습의 연계와 조화	◎ 유동적인 학습 집단을 이용하라. ◎ 학습 활동에 따라 집단조직을 다르게 - 개별 - 소집단 - 전체 지도를 한시간에 여러 번 반복하라.
교수학습활동	5. 수업 방법의 다양화 ○ 다양한 학습 집단 구성과 활동 ○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학습 활동(개인차 존중) ○ 학습 활동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 ○ 판서, 노트 활용의 적절성	◎ 음악수업시 ◎ 체육수업시 ◎ 토의학습 및 토론학습 ◎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환경	6. 학습 환경 ○ 열린 학습 환경 구성 ○ 학습 자료, 학습 소산물 관리	◎ 학습환경을 과다하게 전시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라. ◎ 학습 소산물의 전시도 교육이다.
종합의견	◎ 다가가라. ◎ 미소를 띄어라 ◎ 모션을 잘 써라. ◎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 ※ 아동행동의 이해와 학습지도 원리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하라.	◎ 아이들과 가까이 있어라. ◎ 눈동자를 맞추라 ◎ 칭찬을 자주 하라.

학습 목표 진술 방법

1.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

학습목표는 단위 시간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학생이 성취해야 할 행동 양식 또는 습득된 지식을 서술한 것이다. 학습 목표는 최종 교수-학습목표로서 상세하게 진술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업을 하는 교사가 학습 목표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해당 시간에 무엇을 지도해야하는가가 명확해진다.
- 나. 학생은 무엇을 배워야하는지를 압으로써 학습 결과를 예측하게 되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된 학습목표는 학습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라. 명확히 제시된 학습 목표는 교수-학습 매체를 사용 결정에 도움을 준다.

2. 학습 목표 진술 요령

- 가. 학습 목표는 학습 후에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 또는 학습 결과로 진술되어야 한다.
- 나. 학습 목표는 명시적 동사로 진술한다.
- 다. 학습 목표는 수업 과정에서 의도되고 있는 성취 행동(A)과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될 조건(B), 그리고 학습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달 기준(C)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3. 학습 목표 진술의 일반적 방법

- 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 나. 학생이 학습 후에 나타나는 학습 결과로 진술되어야 한다.
- 다. 관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라. 명시적 동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예) ~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을 찾아 낼 수 있다. 등
- 마. 두 사람 이상이 보아서 유사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4. 단위 시간의 학습 목표 제시 방법

가. 교사의 일방적인 제시 : 판서, 차트, 口頭, TP자료, TV화면을 통해 제시한다.

나. 학습자에 의한 제시 : 학습자의 발표를 통하여 제시한다.

다. 기타 : 선수학습 상기, 교과서 내용 열람, 이야기 자료 제시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도출, 제시한다.

학습부진아 지도

1. 학습부진의 개념

주로 지능이나 학습 가능성에 치중하여 개념화되어 왔고 지능이 보통이고 어떤 요인에 의해 개인의 가능성만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으로 정의되었다.

박성익(1986)은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교수-학습자료의 부족, 선수학습기능의 결손으로 인하여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라고 했으며 교육부(1999)는 학습부진아를 “지능은 정상이나 읽고, 쓰고 셈하기(3R'S)를 포함한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수준에 미달한 자”로 정의했다.

2. 학습부진아의 특징

가. 인지적 특징

1) 읽기 능력

학습부진아의 읽기 능력은 적절한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데 실패한 난독증과 뇌 손상으로 이미 습득한 읽기 능력을 상실한 읽기 장애로 두 종류가 있다. 난독증의 특성은 단어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구성을 누락, 삽입, 대치, 또는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바꾸어 읽는 것이며, 학습장애자들의 80-90%가 읽기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2) 쓰기 능력

쓰기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지각 및 운동과정과 언어능력의 연합된 능력이다. 쓰기의 장애는 근본적으로 언어체계의 문제와, 시각 청각의 기능 및 글자를 쓰는데 필요한 손의 미세 운동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셈하기 능력

셈하기의 어려움은 언어 및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우로써 언어장애가 주원인인 경우

와 공간지각의 어려움 때문에 숫자를 거꾸로 읽기, 계산 시 불규칙하게 계산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대체로 셈하기의 장애를 보이는 아동은 자신 나뉠대로의 셈하기의 규칙을 발달 시킨 경우가 많은데 이 규칙이 대부분 맞지 않는 규칙들이다. 이러한 규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셈할 당시 소리를 내어서 셈하도록 하면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틀린 셈하기 규칙을 알아 낼 수 있다.

4) 고등정신기능

정의를 내리는 일,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 기억력 등에 능력이 현저하게 낮으며, 기호 취급력, 결과 평가, 행동결과의 예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독창성, 어휘, 손재간, 추리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나. 정의적 특징

- 책망에 예민하고 실패에 대한 기대를 먼저 하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 경솔하고 충동적이며 낙천적이며 자신감이 없거나 쉽게 좌절한다.
-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 사회적 활동이 적고 지도성이 부족하며 남과 어울리는데 곤란을 느낀다.
- 학업이나 직업, 장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성취동기가 낮다.
-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지속성이 적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도 적다.

3.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학습부진의 원인을 학습자에게 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학습부진아 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부진아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 많이 되풀이하는 연습과 훈련을 주라.

연습(practice)은 학습의 유착을 높이고 기억을 더 크게, 더 오래 가게 한다. 권태를 느끼지 않고 새 내용을 학습하도록 비슷한 기능이나 개념을 준다.

-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주라.

부진학생은 새 과제를 정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시각적으로 가르쳐라.

부진학생은 말로 떠드는 토의보다도 ‘눈으로 보는 시각’을 요구한다. 많은 시청각 기교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교실수업에 실제경험을 사용하게 하라.

많은 현장견학이나 실습이 필요하다.

- 수업 중에 새로운 관계를 부상시켜라.

부진학생이 새 과제에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부분을 전체에, 추상적 원리를 구체적인 대상에 관련 지운다. 새로운 자료를 학생이 이미 배운 것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보인다.

- 작은 단계로 가르쳐라.

부진학생은 처음에서 끝에 이르는 데는 각 단계를 알 필요가 있다. 배운 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한 단계를 마치면 피드백을 받게 한다. 자신이 없는 학생은 한 때에 하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배운 것을 다른 데로 일반화하지 못하고 주의간격이 짧다. 프로그램 학습은 잘하나 생각하는 학습은 곤란하다.

- 기억을 돕기 위한 학습방법을 이용하라.

사실과 용어를 리듬, 축소어와 짝 지운다. 기억을 높이려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최상으로 기억한다.

- 긴장이 낮고 스트레스가 없는 분위기를 주라.

능력이 없는 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배운 것을 잊고 실수하기 쉽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고 친구로부터 비웃음이 없도록 한다.

- **욕구불만이 일어날 상황에 두지 말라.**

부진학생은 욕구불만의 한계가 낮으니까 풀어주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

-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써라.**

부진학생은 다른 친구보다도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낮춘다. 그러면 교사부터 이런 학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쳐라.**

공부의 왕도는 없다. 하루하루 없는 것을 알고 다달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익힌다. 공부란 특별한 행사가 아니다. 하루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멋진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

■ 5분을 잡아라 - 수업 시작 후 5분이 관건

1. 진정 국면까지 기다려라.

- 수업 시작에서부터 교사는 자신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차분히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2. 학생보다 먼저 인사해라.

- 충분히 정돈되었다면 교사가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 사소한 인사법에도 "학생 존중"이라는 교육관이 배여 있어야 한다.
- 수업에 대한 교사의 성의 있는 태도가 아동들이 느껴지도록 한다.

3. 개성 있는 시작 방법을 찾아라.

- 교사와 아이들에게 맞다면 어떤 개성적인 형태로 시작해도 좋다.
- 수업 시작 5분 안에 할 수 있는 수업 집중놀이나 노래 등을 활용한다.
- 졸음이 오고 지치는 여름이나 학기 초에는 수업 집중놀이나 명상이 좋다.
- 학기말이 다가올 즈음에는 노래가 좋다.
- 기가 있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분출구를 찾아 준다.

■ 수업의 방해꾼을 내 편으로 만들기

1. 특별한 관심을 보여라.

- 칭찬이나 관심을 받아본 일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조그만 친절과 배려에도 금방 약한 모습을 보인다.

2. 자리를 재배치하라.

- 주변이 산만하여 일시적인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재배치한다.
- 서로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다.
- 단순한 장난 위주의 산만함이면 자리를 따로 앉혀 대화를 잠시 끊어준다.

3. 개인지도를 하라.

-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개인 보충지도를 실시한다.
- 교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끼게 되면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

4.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라.

- 산만하고 객기가 많은 학생일수록 어떤 형태로든 튀고 싶어 한다.
- 이때 발표, 퀴즈, 게임 등 단원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 모두 참여하게 한다.

5. 수업을 단계화·구조화하라.

- 수업을 단계화하고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을 동원한다.
- 쉽게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한다.

동기유발의 원리

1. 동기유발의 원리

- 가. 학습자들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학습 목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 나. 학습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다. 학생들의 높은 성취를 위해 도전적이고 다양한 학습활동과 경험을 제공한다.
- 라.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 마. 경쟁적인 방법의 활용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2. 동기유발의 전략

가. Brophy의 학습동기 유발전략

- **수업의 내용을 학생의 흥미와 관련시켜라.**

수업활동을 스포츠, 음악, 시사문제, 애완동물, TV와 영화 속의 인물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라.**

학생들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 **학습과제를 재미있게 만들어라.**

시뮬레이션이나 게임들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만들어 학생들을 자극시키고 상호작용하게 하여야 한다.

-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에 연결하라.**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학생들에게 추상적이거나 낯선 것일 때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념원리를 적용할 때는 독특하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제시하라.**

학습 후 익힌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고 예기치 않았던 것을 사용해야 학습참여가 지속된다.

발표력 신장방안

발표력 신장방안

- 발표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게 한다.
- 다양한 답을 이끌어 내는 물음을 던진다.
- 핵심만을 짧게 한 마디로 말하게 한다.
- 거수(擧手)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명을 한다.

발표력 신장 방법의 실제

1. 매일 자신이 본 TV 내용, 느낌 적기

어떤 TV 프로그램 내용이든지 상관없다. 단 시간이 지나면 뉴스를 보게 하여 수준을 높인다. 다음날 아침 활동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고 친구들과 교사의 평가를 받고, 종례 시간에 다시 한 번 발표를 한다.

2. 2인 1조로 거울 앞에서 연습한 후 친구 앞에서 발표하기

거울로 자신의 자세를 볼 수 있어 효과가 크며, 짝이 지적을 해 줄 수 있고, 짝은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발표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다.

3. 글을 읽고 비슷한 경험 말하기

놀이판의 동그라미 그림 위에 그림 낱말 카드(청소, 친구, 기다림, 걱정, 강아지, 졸음, 즐거움)를 올려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가다가 말이 그림 낱말 카드 위에 오면 그 카드에 적힌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말한 후 그림카드를 갖는다. 게임이 끝난 후 자기가 가진 그림 카드를 2-3개 연결하여 이야기를 시키도록 한다.

4. 뒷이야기 상상하여 말하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나 새로운 이야기 중에서 주별로 1개씩 선정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말하는 놀이'를 한다.

5. 짝 읽기

남녀 짝 일 때 남자가 읽을 차례가 되면 여자는 복도에 나가서 귀를 기울인다. 짝이 책을 읽는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평가하면 읽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6. 무대 발표

자신의 글이나 활동 결과물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무조건 교실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한다.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바라보며 듣기에 좋다.

7. 릴레이 발표

교사가 첫 발표자를 지명한다. 발표가 끝난 학생은 다음 발표자를 지명하고 앉는다. 발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발표가 끝날 즈음 손을 들어 표시한다.

8. 제비뽑기 발표

아이스크림. 막대의 끝에 반 학생들의 이름을 부착한 후 통에 꽂는다. 교사가 이름 막대를 뽑고 뽑힌 아동이 발표를 한다. 한 번 뽑았던 막대는 옆으로 옮겨 섞이지 않게 한다. 전체 학생을 고르게 시킬 때 이 방법이 좋다.

주의 집중 기르기

▣ 주의집중

-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의 관심을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효과적인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
- 교사는 학생의 주의 집중력은 쉽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기본학습 훈련을 잘 시키는 것도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 방법

1. 주의 집중 유지 전략

가. 자료 중심적 전략

-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적시에 사용하여 흥미 유발
- 청각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

나. 의미 중심적 전략

- 핵심 개념이나 원리, 삶과 직결되는 행동하는 지식
- 서로 다른 입장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장면 시도
-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수업 과정적 전략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격려
- 수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열정
- 수업 기술(훈화력, 성량의 크기 및 속도, 유머감각, 자료예시, 어휘의 명료, 기기활용)

2, 주의 집중법

가.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교사의 어떤 표준적인 신호를 사용한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62 쪽을 펴십시오”, 행동신호, 수신호 등) 신호의 전달과 수업을 시작하는 간격은 되도록 짧아야 한다.

나. 수업은 적당한 속도로 진행한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소한 일에 너무 시간을 보내던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요구할 경우 다른 학생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여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수업 중 주의를 조절한다.

교사는 수업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학생들을 주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기들을 규칙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경우 더욱 선생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알맞은 어조와 음량을 적절히 조절하여야만 한다. 또한 강의 이외에 여러 다른 방법인 발문, 시범, 시청각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한다.

마.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대한 책임감을 학생에게 지운다.

다양한 질문을 하든가 예기치 않은 질문을 한다.

바. 열성을 갖고 가르친다.

교사의 열성은 학생들의 주의를 자극한다. 제스처를 쓰고 다양한 어조를 사용하고, 시선 접촉을 자주 한다.

놀이를 이용한 주의집중법

1. 들어가며

수업 중에 작업이나 과제해결을 마치고 소란하거나 주의산만해질 때 짧은 시간에 놀이를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협의를 통하여 더 좋은 자료를 공유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놀이 모음

가. 손가락 그림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공중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나비, 집, 우산 ...)

T : “ 손가락 그림을 그려 봅시다. 동그라미 시작! ”

나. 눈동자 굴리기

교사를 따라 아동 모두 눈동자를 오른쪽, 윗 쪽, 아래쪽으로 눈체조를 한다.

T : “ 지금부터 눈체조를 해 봅시다. 시작! ”

다. 봉어 노래

소리를 내지 않고 봉어처럼 노래를 부르게 한다.

T : “ 송아지 노래를 봉어 노래로 불러 봅시다. 시작!” 박자를 저어 준다.

라. 마음속으로 숫자 세기

교사가 정해진 시간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센 후, 눈을 뜨게 한다.

T :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 봅시다.”

C : 하나에서 열까지 센 후 눈을 뜨고 두 손을 머리에 올린다.

마. 엄지 손가락 접고 세기

오른손은 엄지 손가락을 접고 왼손은 다섯 손가락을 다 펴서 양 손가락을 꺾어 가며 동시에 열까지 세어 본다.

바.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구호에 ‘하늘’은 두 손을 위로 반짝 반짝, ‘땅’은 두 손을 아래로 반짝 반짝, ‘바다’는 두 손을 옆으로 반짝 반짝 하게 한다. 하늘! 땅!바다!를 적당한 횟수로 아동과 함께 복창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리친다.

T : 하늘,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바다!

C : 두 손을 옆으로 반짝 반짝.

사. 시계놀이

양손을 펼쳐 ‘좌 우’ 로 왔다 갔다 하며 “ 똑딱 똑딱 ” 혀로 입천장을 차서 소리를 내다가 “세 시!” 하고 말하면 “땡 땡 땡” 소리 내며 손뼉을 3번 친다.

III. 교사의 다양한 역할

아동의 이해

1. 초등학교 1학년

가. 신체적 특성

키가 많이 자라고 특히 다리가 길어진다. 눈의 성숙도는 아직 불충분하며 원시의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 세밀한 것은 잘 보지 못하며 작은 글씨, TV 등은 눈의 피로를 가져다준다. 대근육은 소근육보다 많이 발달되었으나 더 발달시켜야 한다.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의 활발한 운동이 필요하다. 병이나 전염병에 쉽게 걸리고 문제행동이 많아진다. 대단히 활동적이다. 몸 전체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항상 움직인다. 쉴 줄 모르고 오랫동안 놀다가 피곤하면 화를 내기도 한다.

나. 인지적 특성

유치원 시기에 비해 좀 더 침착해지고 조직화되며 진지해져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추론하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지만 때때로 번덕스럽고 똥하며, 자기 비판을 하는 감정의 기복이 나타난다. 사고할 때도 활동적이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식욕과 호기심이 강하다. 모방놀이를 좋아한다. 아직 참다운 실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는 놀면서 공부한다. 생활속에서 배우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숙제를 부과해야 한다.

다. 사회적 특성

친구관계는 자주 변하며 자기중심적이므로 싸움이 잦다.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어한다. 비판과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모르는 반면 애정, 인정 및 칭찬을 갈망한다.

남의 잘못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난을 수용하는 데는 주저한다. 교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집단 구성원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 받기 위한 것일지라도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의 가정교육의 차이와 새로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학교생활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책임감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2. 초등학교 2학년

가. 신체적 특성

연필을 쥐고 쓸 수는 있으나 미숙하다. 눈과 손의 협응이 완전하지 못하며 가까운 것을 보고 하는 일을 힘들어한다. 눈을 자주 부비는 현상은 긴장과 피로 때문이다.

나. 인지적 특성

1학년의 활동이 근육 적인데 비해 2학년의 활동은 더 지적이고 내적이다. 얻은 지식을 관련지을 줄 안다. 매우 적극적이며 탐구적이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이행하려 한다. 긴장 표출이 적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인다. 흥미의 지속 기간은 짧으며 종종 성급함을 보인다. 회화력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화주제는 자기에 관한 것이다. 연극놀이를 좋아한다. 노래, 리듬, 시를 좋아하고 곡도 정확히 안다. 긴 이야기라도 들으려고 노력하며 즐거리를 되풀이 할 수 있다.

다. 사회적 특성

학교생활에 안정감이 생긴다. 경쟁심이 생겨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편이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선생님의 반응에 민감하고 어른들의 인정을 갈망한다.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부모와 교사들에게 요구사항을 표현하게 되며 말은 기운차게 하려하고 과장하며 비판적이 된다. 집단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래 관계가 인정되기 시작한다.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 상당한 정도의 자기 통제를 할 줄 알게 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타인의 말, 생각, 행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기를 놀리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한다. 수치심 때문에 자기 몸을 남에게 보이거나 접촉하기를 싫어한다. 하루 종일 놀고 싶으나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쉽다. 거짓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 교사의 본보기, 칭찬, 친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3. 초등학교 3학년

가. 신체적 특성

팔이 길어지고 손이 커진다. 눈과 손의 협응이 순조로우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다. 소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글 쓰는 힘이 순조롭고 공작, 바느질, 뜨개질도 할 수 있다. 눈을 많이 사용하므로 근시안이 되기 쉽고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척추가 굽기 쉽다.

나. 인지적 특성

극도로 높은 활동수준을 가지며, 그들의 힘을 시험해 보길 좋아한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야기 나누기를 즐기고, 인지구조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게 된다. 또래집단의 규범에 대항을 해보긴 하지만 아직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관점을 무시하는 대신 자신과 집단의 규범을 비교해 보게 된다. 가치 있는 명확한 행동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감정을 표현한다. 타인과 관련하여 자신을 볼 줄 알게 된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호기심 많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 대한 흥미를 가진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여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된다. 특기 과외를 시켜도 좋으나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다. 사회적 특성

발달적으로 혼돈의 시기이다. 서서히 독립하고자 하는 연령으로 부모와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친밀한 성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활동을 선호하며, 보다 성숙해지고 싶어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또래집단을 중요시하고 이에 속하길 좋아한다. 적극적인 외향성이 된다. 꾸중을 들어도 예사로 생각한다. 마음이 흩어지기 쉬워 한가지일을 차분히 못하고 공부도 적당히 해버린다. 자기에겐 불리한 일은 숨기거나 잠자코 있다. 힘 있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운동 잘하는 아이, 힘센 아이를 좋아한다. 남자 아이는 방랑벽, 여자 아이는 남을 부러워하는 버릇이 붙기 쉽다. 친구가 중요하게 된다. TV, 만화 등에 나오는 유행어를 즐겨 사용한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민감해짐에 따라 변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를 갖게 된다. 권위에 대항하거나 반항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움츠려 들거나 지나치게 불평하는 것이 나타난다.

4. 초등학교 4학년

가. 신체적 특성

여아가 남아보다 조금 빠르게 성숙한다. 폐, 소화기과, 순환기관 그 기능에 있어서 많이 발달된다. 조직화된 게임이나 법칙 있는 운동을 좋아한다. 남아는 심하게 운동하므로 다치기 쉽다.

나. 인지적 특성

개인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구별된다. 성적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으로 친구를 평가하게 된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책을 통해 발견하고자 한다. 여러 종류의 책이나 자료에 흥미를 가지므로 교사에 대한 애착이 덜해 진다.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고 조리 있게 색다른 내용을 쓰려고 한다. TV는 10세 아동의 세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분, 시, 달, 연도, 세기 까지도 포함한 시간개념이 있으며, 혼자 돌아다니기도 한다. 진실을 말하려는 경향이 향상된다. 생활을 즐기고 또래, 학교, 가정에 대해 긍정적이고 순종하며 착하고 함께 일하기를 즐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많이 받아들인다. 자연스럽게 어른들이나 다른 아동을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급작스런 울화를 터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쓰기보다는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이 시기의 공부는 능력만으로 안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회적 특성

자아개념이 발달하고 개성이 뚜렷해진다. 또래집단과 동일시하기를 좋아한다.

또래집단의 리더의 말을 부모나 교사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부모의 결함이나 무지를 평가하고 용납할 줄 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조용하고,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놀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지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자신의 통찰력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언동에 표리가 나타나며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 쉬우므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멋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 이 시기에는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책임과 봉사정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5. 초등학교 5학년

가. 신체적 특성

사춘기 전기의 증상이 나타나며 남아는 변성이 시작되는 아이도 있고 여아는 초경이 시작되기도 한다. 여아가 남아보다 육체적 성숙이 빠르다. 폐, 호흡기관, 순환기간이 성숙된다.

나. 인지적 특성

자기주장, 호기심 그리고 사회성을 좀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차별하지 못하며, 말하기를 좋아하고, 격렬한 감정의 동요상태에 있게 된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따분해한다. 자주 좌절하고, 경쟁적이며,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기억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원인을 추구하며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결단도 가능하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려 하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기 쉽다. 여행 등을 통해 사회의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사회적 특성

어른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성인과 또래들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는다. 개인적인 판단이 섰을지라도 집단 내에서 일어난 자연스런 상황에 민감하게 된다. 집단 경쟁을 즐기고 넘치는 힘으로 인해 놀이친구와의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호감을 주지 않고 침통해 있는 또래를 보면 조롱하거나 잔인해지기까지 한다.

공부나 놀이 모두에서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강해진다. 숙제도 선생님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룹을 만들어 지칠 정도로 놀고도 공부해야하므로 과로하기 쉽다. 제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으므로 치켜세운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 남을 놀리거나 피병을 부리거나 도벽이 생기기 쉽다. 11세 아동 곁에 있으려면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다. 떠도는 기억, 의도하지 않은 무례함, 내적 건강을 해소하기 위한 지나친 신체 움직임, 흥미 있는 주제가 나타나면 상황의 고려 없이 말을 빨리 해 버림, 우발적인 것에 반응함, 성적 발달에 관한 질문, 교사에 대한 잦은 불만(너무 엄격하며, 너무 거만하다는 식으로)으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 시기가 갖는 특성의 반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한다. 이 시기에는 남아와 여아를 한 집단 내에 섞는 것이 어렵다.

6. 초등학교 6학년

가. 신체적 특성

남녀의 성장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여아가 남아보다 1. 2년 정도 발육이 빠르다. 여아 뿐 아니라 남아도 성장이 갑자기 빨라지고 고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침착하지 못하고 둔해지고 피로를 잘 느끼며 게을러지고 기분이 자주 바뀐다. 성장이 빠른 만큼 입맛이 굉장히 좋다. 12세 아동들은 남녀 구분이 덜 분명해져 혼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들에게 성과 성적 활동은 매우 흥미 있는 주제가 된다. 이에 따라 성 관련 주제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부터 극적인 신체 변화를 포함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지적 특성

어린애 같던 행동에서 성숙한 어른 같은 행동으로 변한다. 활기차고 열성적이고, 직관력과 통찰력이 보다 깊어진다. 좀 더 긴 시간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몸을 쉴룩거리거나 뒤튼다. 긴장의 배출이 감소한다. 정서적으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아 중심적이 되며 자부심을 확신한다. 생각이 깊어지고 유머 감각이 뚜렷해진다.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생각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 비판정신은 토론하기 좋아하는 성향으로 발전한다. 사회생활의 의미, 선악에 대한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신문에 대한 흥미를 갖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맞설 수 없는 상대에겐 물러선다. 능률이 오르는 공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독서, 토론, 기회제공)

다. 사회적 특성 성적(性的)으로 성숙해진 여아는 변덕스럽고 행동이 어색해진다. 남녀는 피차적대시하나 그것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여아는 남아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특히 외모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남아는 여아를 놀리고 농담하는 것으로 관심을 보인다. 신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사생활을 요구한다. 대부분 학교를 좋아하며, 또래는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다.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의상이나 취미가 집단에서 너무 벗어나길 원치 않는다. 제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임기응변술이 등장한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노골적으로 지적당하면 싫어한다. 부모의 판단이나 성격에 대해 비판한다.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독창 무용, 연극, 작품 발표 등을 좋아한다. 자기의 성격, 관심이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며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고자 한다. 저학년울 거느리거나 부리기만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생활지도

1. 생활지도의 목표

- 가. 자신의 올바른 이해
- 나. 잠재능력의 개발
- 다.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
- 라. 현명한 선택과 적응
- 마. 전인적 인간발달
- 바. 민주시민의 육성

2. 생활 지도의 실제

1) 교사의 정체성과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누구나 좋은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학교에 부임하지만, 학교현장은 교사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마다 작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분노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게 된다.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더욱 위축되고, 해가 갈수록 교사직이 주는 안일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춰버린 교사 밑에 있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교사는 학창시절에 우수 집단에 속했고, 소위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어,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고, 주로 칭찬과 배움을 받은 사람들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는 힘이 적고, 지적인 오만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는 자기부인이 있어야 하겠다.

2) 학생들 마음 읽어주기

사람의 얼굴만큼 다양한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고, 점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받아들여진다. 가정의 형태도 많이 변했고, 입시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좋고 어떤 것들은 꼭 집어서 지도해야 하는 데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수시로 관찰하고 살피고 보살피야 할 것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루는 지도여야 하겠다. 교사의 자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학생들의 코드를 읽어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뢰를 하게 되며, 훨씬 지도하는 일이 쉬워 질 것이다. 어른의 권위는 가르치되,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겠다.

칭찬하고 꾸중하는 방법

▣ 꾸중하는 기술에 대하여

1. 너무 어릴때부터 꾸중하지 말아라.

가벼운 훈계가 아닌 꾸중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능 할 때 하는 것이 좋아요. 말귀는 알아듣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5세 이전의 아이들은 꾸짖음 보다는 관심을 돌리게 유도하는 것이 현명해요.

2. 심한 꾸중은 아이의 자신감을 잃게 한다.

너무 심하게 야단치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만 잘하고 부모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되요. 부모가 시키는 일만하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구요.

3. 위험한 행동 그 자리에서 꾸중하라.

아이가 차도에 뛰어든다거나 칼 장난, 불장난 등 본인과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심한" 꾸중도 무관합니다. 그래야 강하게 인식해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4. 말로만 하는 꾸중에 앞서 부모가 시범을 보여라.

아이가 방을 어지럽혔다면 잘못된 점을 꾸중하고 아이가 따라하도록 부모가 직접 방을 치우는 시범을 보여주세요.

5. 일관성을 가지고 꾸짖는다.

어떤 때는 야단치는 일도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면 매우 안 좋아요. 부모의 일관성 없는 꾸중은 아이가 왜 혼나는지 몰라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6.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꾸짖지 마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바보냐?" 등의 꾸중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불만만 쌓이게 해요.

7.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이의 감성에 좋아요.

8. 체벌 받고 자란 아이의 지능이 낮다.

부모와 아이 간에도 "다음에 또 그러면 손바닥 10대 맞는다.

"식의 체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체벌이 심한 아이는 평균지능보다 12정도 낮다고 하네요.

9. 작은 목소리로 야단친다.

소리가 큰 꾸중은 아이에게 반감을 갖게 한대요. 작은 소리로 야단하면 오히려 쉽게 수긍해요.

10. 화난 기분으로 꾸중하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 꾸중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요. 우선 부모의 기분을 차분히 한 후 꾸중해야 효과적이죠.

▣ 칭찬하는 기술에 대하여

1. 무조건 달래지 않는다.

아이가 울거나 보챤 때 "우리 아기 착하지 울지 마라"하며 헛칭찬을 늘어놓으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다고요. 칭찬 받기위해 무조건 울고 보채는 아이가 될 수도 있구요.

2. 착한 행동에는 열심히 칭찬해라.

아이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래, 잘했다"라고 짧게 말하기 보단 "엄마는 네가 착한 일을 해서 참 기뻐"라고 구체적이고 기쁘게 즐겨워하세요.

3. 한가지 일을 반복 칭찬하지 않는다.

아이가 같은 일을 계속한다고 그 때마다 칭찬을 반복 할 필요는 없어요. 효과 없는 칭찬이기 때문이지요. 처음 인사를 할 때 는 칭찬해주되 또 다시 인사한다고 칭찬 할 필요는 없어요.

4. 아이의 특성에 맞추어 칭찬해라.

아이마다 칭찬해 주어서 기분 좋아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므로 한동안 아이를 관찰하고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와 장소, 사건을 살펴 칭찬해 주세요.

5. 빈말로 하는 칭찬은 아니 한만 못하다.

건성으로 하는 칭찬은 무관심의 표현이 기도 해요. 진심어린 눈빛으로 해주는 말 한마디가 효과적이지요. 꾸중 또한 마찬가지예요.

6.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오늘은 어제보다 블럭을 더 높이 쌓았네, 노력 많이 했구나!"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하세요.

7.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아이의 그림을 보며 "잘 그렸다"가 아니라 "기린 목을 길게 그리니 정말 기린 같다"라고 칭찬하세요.

8.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라.

컵을 깬 아이에게 "놀랐을텐데 침착하구나, 그러니까 컵은 항상 두 손으로 들어야 해" 하며 꾸중 전에 칭찬을 해주세요.

9. 과장된 칭찬은 아이의 눈을 가린다.

낙서를 보고 "천재"라고 칭찬하면 커서도 정당한 비판에 화를 내거나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집단 따돌림 아동 지도 방법

요즘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왕따라는 평을 듣거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 일로 자살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전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아이들이 왕따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예방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왕따 시키는 행동 유형

상대 안하기, 은근히 욕하기, 시비걸기, 학용품이나 숙제 숨기기, 장난을 빙자해 때리거나 가혹행위하기 등과 같은 폭력을 가해 집단에서 정상생활 불가능하게 함.

2. 왕따가 되기 쉬운 아동의 행동 특성

- ① 내성적이며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
- ②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혀도 가만히 있으며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동
- ③ 잘 씻지 않고 복장이 지저분한 아동
- ④ 옷차림, 유행어, 연예인 동경과 같은 또래집단의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

3. 자녀를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유형

- ① 유아기나 아동기 때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부모
- ②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칭찬과 지지보다는 잔소리와 비난을 하는 부모
- ③ 자녀와 대화하기 보다는 폭력을 가해 정서적으로 위축시키는 부모
- ④ 자녀가 해야 할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해주는 등 과잉보호로 공주병, 왕자병을 만드는 부모

4. 왕따 피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

- ① 따돌림을 하는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만을 확실히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② 담임에게 이야기 할 경우 따돌림의 원인, 피해상황,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에 상담을 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담임을 통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따돌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도록 하여 다시 따돌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다.
- ③ 자녀가 학교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전학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전학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전문상담원, 의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결혼 가정의 문제아 지도 방안

1. 결혼 가정 아동이 나타내는 특징들

- ☞ 충동적이며 산만한 태도,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과 분노, 자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 긍정적인 자아인식 부족, 유기공포(아빠가 자기를 버린다면 엄마도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 도벽 등

2. 접근 방향 (지도 방향)

가. 부모를 만나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1) 이혼한 부모들의 상담 시 해야 할 조언

- ☞ 부모들이 아동과 이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알리는 과정은 중요한 과정이다.
 - (1) 아동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이혼에 대해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인지수준에 맞추어 이혼 시나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한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아 아이의 오해나 공포를 곧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한쪽 부모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 (2) 아이의 생활이 되도록 안정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동들이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 (3) 떠난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여 아이가 양부모 모두에게 사랑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
 - (4)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5)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들이므로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결혼 파탄의 현실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 부모의 갈등과 곤란에서 빠져나와 일상적인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한다.

4) 상실, 분노, 자기비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애착 형성, 원활한 의사 소통, 관계 증진에 힘쓰고 역할놀이, 창조적 사고 게임 놀이 등에 적극 참여

시킨다.

- 5) 이혼의 영구성을 수용하고 초기 청년기 동안 친밀한 이성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참고가 될 만한 책들**

- 아동의 특성과 문제별 아동상담과 놀이치료, 염숙경 저, 상조사
- 한아이, 토니L.헤이든 지음, 주정일·김승희 옮김, 샘터 유아교육신서
-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금, 박남기, 학지사

주위가 산만한 아동 지도 방법

1. 주의 산만한 아동은

아동이 자리에 앉기는 하는 데 한눈을 잘 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길 잘하고 공부하기 위해 앉았으나 책상 주위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모두 만지작거리며 놀기 때문에 수학문제를 풀어도 어떤 때는 정확히 풀고 어떤 때는 거의 틀려서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기가 죽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주위집중이 안되는 아동은 일관성 없이 행동을 하며, 한 과제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거나 쉽게 산만해진다. 따라서 꼼꼼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순식간에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한다.

2. 지도 방법

- 가. 발달지체로 인해서 주위가 산만한 아동은 무조건 아동을 오랫동안 앉혀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나 스포츠 등을 제공해 움직이는 활동이나 작업에 주의집중하여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 나. 자극이 너무 많아 주위가 산만한 경우는 외부적으로 환경을 계획적으로 잘 정돈해 주면 쉽게 지도할 수 있다. 즉 자극이 많아 중요한 자극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자극은 무시해 버리도록 지도한다.
- 다. 주의 집중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동은 다음과 같이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처음 공부할 때는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과제나 공부를 선정해서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아동이 재미있고 쉽게 하면서 주의집중을 하게끔 도와준다. 아동이 차분히 앉아서 잘하고 나면 아동에게 보상과 칭찬을 해주어 성공감을 맛보게 해준다.

■ **산만하고 말 안듣는 아이를 위한 이상적인 부모 및 교사**

※ 참고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주의산만함, 과잉행동, 충동성의 특징을 보이는 소아, 청소년기의 행동을 말합니다.

1. 규칙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그러나 항상 감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2. 아동(자녀)의 학습스타일에 맞게 지도한다.
3. 아동(자녀)의 능력과 기술에 맞는 학습자료를 준비한다.
4. 흥미가 있는 과제와 없는 과제를 적절히 혼합해준다.
5. 자녀가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를 알고 적절히 중단시킨다.
6. 말은 명료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7. 가르치는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를 알고 적절히 중단시킨다.
8.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아동(자녀)의 눈을 보고 앞에서 한다.
9. 행동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조언한다.
10. 아동(자녀)가 적절히 행동하도록 알아채기 위한 개인적인 신호를 만든다.
11. 작은 실수는 무시한다.
12. 유머 감각을 유지한다.

체벌 대신할 수 있는 활동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스승의 체벌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사용되는 좋은 교육적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체벌의 성격이 일부 변질되어,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많이 가져오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와 그에 대신할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체벌 대신 할 수 있는 활동

가. 교사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일 때 벌은 교사가 맺힌 것을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몸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1) 교사와의 신체접촉하기

(손잡고 공부하기, 손잡고 교실이나 운동장 걷기, 업어주기 등. 단, 고학년은 주의)

2) 특정 학생의 돌발적 상황 예측하고 대비하기(아동 이해)

나. 수업분위기를 흐트리는 상황에서는 전체의 통일된 움직임이나 개별적으로 재미있는 동작을 하고 서 있게 한다.

1)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전체의 통일된 움직임을 유도하기.

2) 조각상이 되어 움직이지 않기(수퍼맨, 자유의 여신상 등)

3) 해당 어린이에 대한 즉흥 동시 지어주기

다. 학습활동에 불성실한 경우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1) 시 외우기(동시나 동요)

2) 명언 10개 찾아 적기

3) 장애우 체험활동

4) 책 읽고 글쓰기 하기

5) 남아서 악기 연습하기

라. 싸움이나 욕설 등 거친 행동을 한 경우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 1) 운동장 걷기
- 2) 종이에 줄긋기(1센티미터 간격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긋기)
- 3) 상황 재연하기(상황을 극본으로 써 보기)
- 4) 학급재판소 열기 - 두 학생이 갈등이 있는 경우 학급재판을 열어 의견을 말하게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듣는다.

마. 놀이로 하는 활동(분위기나 상황을 고려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선에서 활용함)

- 1) '돼지꼬리' - 교사의 질문에 무조건 "돼지꼬리"하고 대답하기
- 2) 코끼리 코 - 코끼리코를 하고 교사가 요구하는 숫자만큼 몸을 돌리기
- 3) 송아지 노래 부르기 - 받침에 "o"을 넣거나, 모음을 바꾸어서 노래 부르기
- 4) 얼굴 종이 떼기 - 물을 묻힌 종이를 얼굴에 붙인 후 손 데지 않고 떼기
- 5) 가위바위보 다리 벌리기 - 2명이 대상일 경우 진 사람이 다리 벌려가기

바. 교사의 관심어린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오히려 더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1) 함께 퇴근하기
- 2) 선생님과 러브장 하기(1:1 대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사업 연수과정 6
'아동의 이해와 지도법'

발행인	김 주 호
발행일	2007. 5. 11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주소	135-873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08-5번지
연락처	T 02-3704-5952/5945 F 02-3704-5999
진행/제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양성팀
담당	황지영·이선정
디자인/인쇄	디센더·descender
등록	KACES-0720-C008
